

20대 청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준¹, 박금주^{2*}

¹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²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The Impact of the Youth'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Attitudes

Young-Joon Choi¹, Geum-Ju Park^{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²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Dankoo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1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의 영역별 변인과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일반 기술 통계량 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 4가지 영역별 변인 중 희망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원력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분석에서는 대졸 초과 집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이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재취업 태도 분석에서는 대졸 집단의 재취업 태도가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이 3.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 4개 변인의 재취업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약 25% 정도였다. 20대 청년들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치가 높아 고학력 재취업 희망자일수록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re-employment attitudes of youth in their 20s dealing with an unemployment rate of more than 10%.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attitudes for re-employment was analyzed by domain, and is based on variabl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mposed of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and optimism. As a result, hope (3.64) was the highest on the scale; however, resilience (at 3.37) was the lowest. In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university graduate group (3.89) was the highest. But, the high school graduate group (3.25) was the lowest. In the results for re-employment attitude based on education level, the university graduate group (4.93) was the highest, but the high school graduate group (3.80) was lowest.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re-employment attitude were (in order): hope, optimism, self-efficacy, and resilience. These factors have an explanatory power for the four variables of around 25%. Overall, young adults (in their 20s) have higher level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cause they have a higher education level. Also, higher educated re-employed applicants have high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ttitudes for re-employment,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Key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0s(Youth), Unemployment, Reemployment Attitudes, Job Search

*Corresponding Author : Geum-Ju Park(Dankook Univ.)

email: ibbungirl2016@nate.com

Received July 15,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26,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1. 서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5월 현재, 20대가 10.1%로 나타나 30대 3.7%, 40대 2.4%, 50대 2.6%, 60세 이상 3.2%의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1]. 이런 20대의 구직난 속에서 청년층에 해당하는 신규채용 임금 근로자의 64%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20대 청년층 대졸자의 약 20%가 2년 내에 첫 직장을 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20대 청년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다는 것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악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정, 빈곤율 증대, 경제불황, 국가존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질한 20대 청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4]. 활동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재취업이 안 되어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20대 청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외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실업급여지급과 같은 금전적 지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상태와 재취업 태도 등의 내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업률이 높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긍정적 강점을 향상시켜 구직활동을 포함한 삶 전체에 걸쳐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 인적자원의 강점을 강조하고, 일터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이 제시되었으며, 긍정심리자본과 취업, 생산성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5-10].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5], 경력 만족도[8], 업무 성과[6, 7]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둔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발전 추구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다[11].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고찰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인지적, 정서적인 삶에 대한 평가이다[9].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각 구성개념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는 구직행동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긍정심리자본은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어떤 문제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복원력을 갖게 하고, 성공에 대해 낙관적이다[5,11].

선행연구를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7].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직원 참여와 경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변인이 직원 참여에는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가 정(+)의 영향을, 경력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신중년의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주의, 희망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고 재취업을 고양을 위해 자신감과 긍정적 자세, 구직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였다[5].

대부분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직근로자, 중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한계를 나타내는 20대 청년층의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층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20대 청년층의 구직과 연계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취업 태도와 그 영향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분석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와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여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재취업을 희망하여 방문한 20대 청년이었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교육수준, 구직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변인과 긍정심리자본 및 재취업 태도 관련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은 선행연구[5-8]에서 제시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등의 하위요인을 긍정심리자본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를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로 구성하여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5]의 연구에서는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0.9이상, [8]의 연구에서는 0.6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0.7이상의 신뢰도 분포를 보였다.

재취업 태도는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의사를 가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재취업 태도 변인은 관련된 선행연구[5, 12-14]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 및 재취업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은 리커트(Likert-type)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태도와 긍정심리자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부의 고용센터, 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복지부의 복지지원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훈처의 재대군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15]. 설문조사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2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구직기간의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긍정심리자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의 4개 영역과 이들의 하위변인 24개 및 재취업 태도의 하위변인 4개 등 총 28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 변인들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기효능감 관련 6개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통계량이 .855로 나타났다.

희망 관련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800, 복원력 관련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796, 낙관주의의 관련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748로 나타났다. 재취업 태도관련 3개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Cronbach α 통계량이 .841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서울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재취업을 원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0부(85%)를 회수하였다. 이중 끝까지 설문지 완료되지 않은 설문지 18부는 제외하였다. 회수된 322부의 설문지는 일반 기술 통계량 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Table 1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 내용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관련 연구에서 구인타당성이 입증된 자기효

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장기적 문제분석 자신감:x1, 근경대처 자신감:x2, 전략논의 기여 자신감:x3, 목표설정협력 자신감:x4, 외부인접촉 자신감:x5, 정보제공 자신감:x6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희망은 곤란해결에 다양한 대안제시:x7, 현재 목표달성기여 최선:x8, 문제해결방안 다수보유:x9, 자기 일에 성공:x10, 최근 목표달성에 다양한 사고:x11, 현 자기 설정목표 충족:x12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복원력은 좌절극복 가능:x13, 곤경관리 능력보유:x14, 자기업무 주도성:x15, 스트레스 극복:x16, 고난의 경험으로 해결:x17, 멀티기능 가능:x18로 구성하였다. 낙관주의는 불확실성에서 최선기대:x19, 문제발생 긍정수용:x20, 항상 밝은 면 주시:x21, 장래 낙관:x22, 맡은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x23, 고난을 희망으로 교체:x24로 구성하였다. 재취업 태도는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y1, 재취업을 위해 최선:y2, 재취업준비:y3, 재취업은 삶에 유익:y4 등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The consist of the contents and the reliability

Area	The contents	The number of contents	Cronbach's α
Personal features	Gender, educational level, Non-employment duration	3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 areas & reemployment attitude	self-efficacy	6	.855
	hope	6	.800
	resilience	6	.796
	optimism	6	.748
reemployment attitude	reemployment attitude	4	.841
	Total	28	-

3.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성 45.3%(146명), 여성 54.7%(176명)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고졸미만 3.1%(10명), 고졸 24.8%(80명), 대졸 50.3%(162명), 대졸 초과 1.2%(4명)로 나타났다. 실업기간은 1개월 미만 29.8%(96명), 1~3개월 미만 29.2%(94명), 3~6개월 미만 21.7%(70명), 6~12개월 미만 11.2% (36명), 12개월 이상 8.1%(26명)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reas		N	Ratio(%)
Gender	Male	146	45.3
	Female	176	54.7
	Total	322	100.0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10	3.1
	high school graduation	80	24.8
	technical college graduation	66	20.5
	university graduation	162	50.3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4	1.2
	Total	322	100.0
Non-employment duration (month)	less than 1	96	29.8
	over 1 to less than 3	94	29.2
	over 3 to less than 6	70	21.7
	over 6 to less than 12	36	11.2
	over 12	26	8.1
Total	322	100.0	

20대 청년들의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4개 영역의 평균에서

Table 3.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employment attitudes

variable	mean	SD
self-efficacy v1	3.48	.616
x1	3.42	.802
x2	3.33	.841
x3	3.48	.766
x4	3.65	.816
x5	3.44	.819
x6	3.59	.809
hope v2	3.64	.551
x7	3.42	.747
x8	3.86	.801
x9	3.81	.817
x10	3.46	.850
x11	3.56	.755
x12	3.65	.799
resilience v3	3.37	.591
x13	3.29	.983
x14	3.45	.706
x15	3.52	.758
x16	3.27	.927
x17	3.50	.774
x18	3.20	.856
optimism v4	3.56	.561
x19	3.38	.828
x20	3.23	.915
x21	3.68	.816
x22	3.53	.843
x23	3.70	.864
x24	3.84	.789
reemployment attitude a	4.06	.617
y1	4.01	.777
y2	4.03	.718
y3	4.10	.717
y4	4.10	.783

희망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주의 3.56, 자기효능감 3.48, 복원력 3.37의 순이었다. 편차는 .551에서 .983까지 분포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에서 x4(목표설정협력 자신감)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x2(근경대처 자신감)가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희망에서는 x8(최선)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x10(자기 일에 성공)이 3.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원력에서는 x15(자기업무 주도성)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x18(멀티기능 가능)이 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낙관주의에서는 x23(말은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이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x20(문제발생 긍정수용)이 3.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취업 태도에 대해서는 y3(재취업준비), y4(재취업은 삶에 유익)이 동일한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y1(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이 4.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대졸 초과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만족도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미만은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최소유의차)검증 결과, 고졸 미만은 대졸과 대졸 초과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고졸은 대졸과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Table 4.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y educational level

Areas	n	mean	SD	F	p	LSD Multi-range verification
1)under high school	8	3.25	.348	3.353	0.01	1) 2) 3) 4) 5)
2)high school	80	3.42	.438			1)
3)technical college	66	3.46	.516			2)
4)University	162	3.60	.481			3)
5)higher than University	4	3.89	.361			4) * * 5) *
Total	320	3.52	.482	p<0.05		

학력수준에 따른 재취업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Table 5와 같이 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LSD 검증에서 고졸은 전문대졸, 대졸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Table 5.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attitudes by educational level

Areas	n	mean	SD	F	p	LSD Multi-range verification					
						1)	2)	3)	4)	5)	
1)under high school	10	3.80	.856	2.944	0.21						
2)high school	80	3.91	.647								
3)technical college	66	4.17	.619			*					
4)University	162	4.93	.569			*					
5)higher than University	4	4.50	.577								
Total	322	4.06	.617	p<0.05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하위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변인 중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성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변인과 재취업 태도 변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Table 6.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attitude by gender

variable		N	M	SD	t	p
self-efficacy	male	146	3.62	.567	3.76	.000***
	female	176	3.37	.634		
hope	male	146	3.69	.495	1.47	.140
	female	174	3.60	.592		
resilience	male	146	3.48	.606	3.09	.002**
	female	176	3.28	.564		
optimism	male	146	3.60	.502	1.24	.217
	female	176	3.53	.605		
reemployment attitude	male	146	4.11	.606	1.43	.153
	female	176	4.01	.624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 간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 변인은 유의수준 $p<.01$ 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심리자본 하위 변인 중 희망은 상관계수 0.456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0.435, 낙관주의 0.415, 복원력 0.323의 순이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0.6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원력과 낙관주의의 상관계수가 0.675로 나타났다.

Table 7.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employment attitudes

variable	a	v1	v2	v3	v4
reemployment attitude	1				
self-efficacy	0.435**	1			
hope	0.456**	0.690**	1		
resilience	0.323**	0.529**	0.625**	1	
optimism	0.415**	0.537**	0.616**	0.675**	1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수정된 결정계수 R^2 가 0.246으로 나타나 전체 4개의 긍정심리자본 변인들이 재취업에 대한 영향력을 약 25% 정도 설명하고 있다. 즉,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이 재취업 태도에 약 25%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회귀계수들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희망과 낙관주의가 $p<0.05$ 의 유의수준에서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able 8. Th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on the reemployment attitudes

Regression Model	B	S.E	Beta	t	p
constant	1.924	.221		8.709	.000***
self-efficacy	.158	.069	.158	2.297	.022*
hope	.306	.085	.279	3.608	.000***
resilience	.094	.073	.091	1.279	.202
optimism	.222	.077	.204	2.893	.004**
R= 0.496 R ² = 0.246					
Adj R ² = 0.236 F= 25.656 p= 0.000***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 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희망이 0.279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낙관주의 0.204, 자기효능감 0.158, 복원력 0.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취업 태도에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청년의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

리자본은 평균 3.0이상(영향력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4개 하위 변인 중 희망이 가장 높았고 복원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력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분석에서는 대졸 초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재취업 태도 분석에서는 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분석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변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의 순으로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약 25% 정도 영향력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개인역량을 향상시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요소이다. 20대 재취업자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희망의 증진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 고학력의 재취업 희망자일수록 재취업에 대한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미만의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을 복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gender/age,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accessed Jun. 26, 2019)
- [2] B. S. Kim, H. S. Jung, Recent changes in the irregular labor market, Using additional surveys by work type, Labor review, No.130, pp.91-108, 2016.
- [3] E. H. Lee, Initial Occupational Mobility of Youths, KRIVET Issue Brie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No.107, 2016.
- [4] Y. S. Lim, Policy determinants of youth reemploy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 [5] H. S. Lee, Y. G. Le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33-40,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033>
- [6]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n,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Gallup Leadership Institut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06.
- [7] F. Luthans, S. M. Norman, B. J. Avolio & B. James Avey,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 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9, No.2, pp.219-238, 2008.
DOI: <https://doi.org/10.1002/job.507>
- [8] M. Y. Park, Y. C. Jang, G. H.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Employee Engagement and Career Satisfaction: Focused on the Employee Organization of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rea by Multi-Group Analysi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8, No.12, pp.3095-3130, 2015.
DOI: <http://dx.doi.org/10.18032/kaaba.2015.28.12.3095>
- [9]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2, pp.34-43,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34>
- [10] F. Luthans, C. M. Youssef, B. J. Avolio,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1] F. Luthans, C. M. Youssef, B. J. Avolio, Psychological capital :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2] M. Y. Lee, J. Y. Shim, A Study on the Need for Diagnosis of Handicapped Needs of the Disabled,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pp.29-52, 2017.
- [13] I. W. Bae, *An analysis on job-searching determinants of career-interrupted female baby boomers, sookmyung women*, Docto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14] S. A. Lee, K. H. Shin, A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mploy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 Search Behavior: A Study on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4, pp.2061-2076, 2018.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8.24.1.61>
- [15] [Internet]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Available From: <http://workplus.go.kr> (accessed Aug. 20, 2019)

최 영 준(Young-Joon Choi)

[정회원]



- 1990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9년 6월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2019년 7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직업교육

박 금 주(Geum-Ju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수학습과정개발, 직업진로교육과정개발